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문행극회 창립목적

본 문행극회는 대내적으로는 성균관대학교를 대표하는 극예술문화의 단합체를 목표로 하는 바, 극예술창조과정을 통하여 대학생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기준을 세움과 아울러 회원 각자에 대한 내적 충실과 자기발전 내지는 자기확대를 기하고, 취미에 따라 여러 분야(문학, 미술, 음악, 조명, 의상, 무대장치, 분장, 진행, 연기, 기획 등)에 대한 견식을 쌓고 전회원이 실로 활동하는 탐구생활로서 인간적으로 이상을 구현하며, 대외적으로 각 대학과 긴밀한 유대관계 아래 청년문화의 선구자적인 역할로 한국문화 발전에 대한 새로운 방향제시와 외래문화에 대한 날카로운 비평과 함께 사회정의의 위해 보다 진취적인 방법으로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祝 
여러분의
뜻깊은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東亞製藥株式會社

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문행극회 제47 회 정기대공연



제4 회 전국 대학연극축전 참가작품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최 인 훈 작
이 명 은 기획
구 재 헌 연출

지도교수 : 정 진 수

'81.10.1 ⇨ 10.5

4	7
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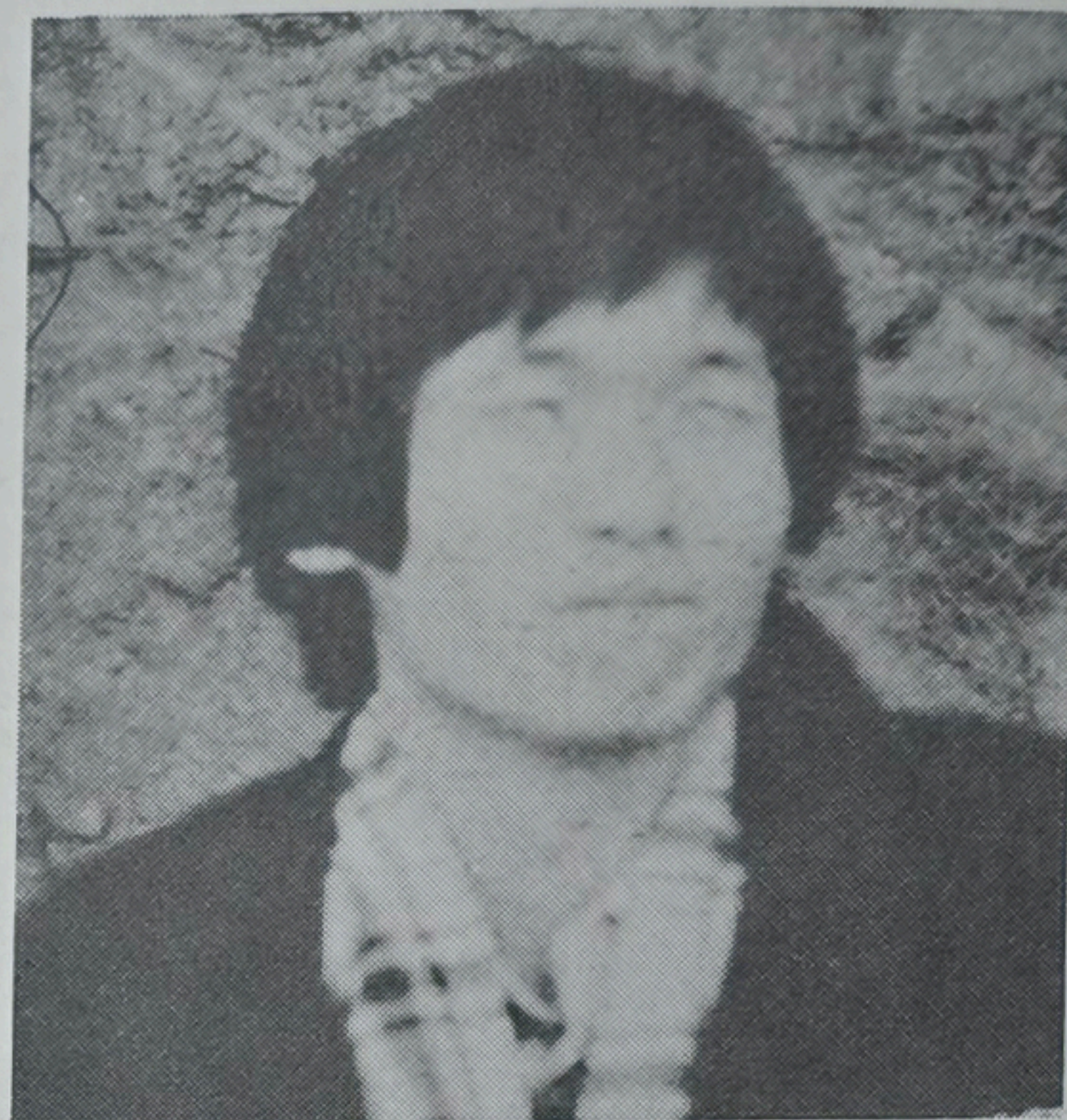
 운현극장

失業者의 노래 Ⅲ

처음에는
나같은 病身이
나 같지 않은 안病身보다 많더니

차츰차츰
하나씩 둘씩
나같은 病身이
나같지 않은 안病身이 되더니

이제는
나같은 病身은 하나도 없더라



도와주신분 배인수 선배님

지도교수의 글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은 궁극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年前에 어느 극단이 이번 「문행극회」공연 작품인 최인훈氏의 《달아 달아 밝은 달아》를 가지고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꽤 불안스러웠던 공연으로 기억되는데 주변의 評者들은 공연 못지 않게 작품에 대한 불만도 켜던 것 같다. 위에서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이라고 못박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작품에 대한 나의 인상은 지금 돌이켜 보니 작품 이상으로 좋았던 것 같다. 다만 우리 연극, 그리고 우리 관객의 연극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제값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다. (연극을 그저 한토막 美談 정도로 생각하는 관념). 특히 요즘처럼 거의 광신적인 국수주의 또는 애국주의 내지는 「우리 것」 떠받들기의 풍조 속에서 《달아 달아……》의 거의 자학적이라 할 만한 Sarcasm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회포 안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보이는 반복에 의한 강조법이 무대 위에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문행극회」가 유독 이 작품을 선정한 뜻은 사주고 싶으며, 대학생들의 열띤 무모한 듯한 패기가 뜻밖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소지가 이 작품에 들어있다고 믿어진다.

수고한 스태프·캐스트에게 보람있는 공연이 되기를 바란다.

기대되는 연극

정진수 지도교수



초대의 글

우리의 작은 외침!

회장: 조규엽 (신방2)

지난 여름,
우리는 솟아오르는 욕망에 못 이겨 또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참으로 고달픈 자신과의 투쟁의 연속이었다.
이제 서서히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100일간의 고행의 여로가 끝나간다.
허공에 사라지는 연기처럼 허무하게 꺼져가는 배역의 순수한 인간성을 못내 아쉬워 하며 또 한 번 허공에 외쳐본다.
막은 내리겠지만 그 외침은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깊이깊이 자리잡고 끝없는 메아리 되리라.
오늘, 우리 스스로 만족해 버린 연극이 아니기 위해 부끄럽게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 막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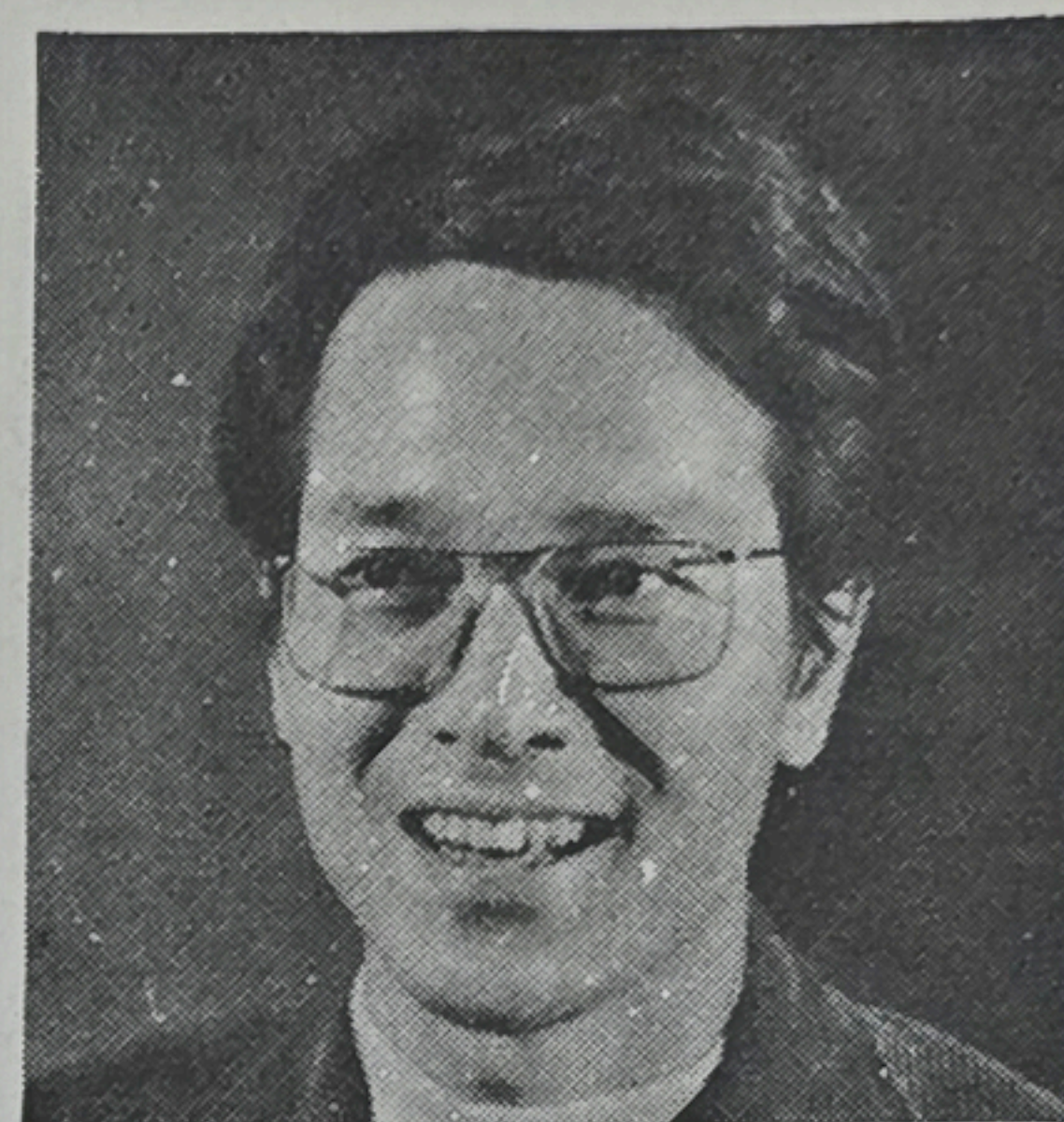
지도교수의 글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은 궁극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年前에 어느 극단이 이번 「문행극회」 공연 작품인 최인훈氏의 《달아 달아 밝은 달아》를 가지고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꽤 불안스러웠던 공연으로 기억되는데 주변의 評者들은 공연 못지 않게 작품에 대한 불만도 컸던 것 같다. 위에서 예술 작품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이라고 못 박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작품에 대한 나의 인상은 지금 돌이켜 보니 작품 이상으로 좋았던 것 같다. 다만 우리 연극, 그리고 우리 관객의 연극에 대한 야릇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제값을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다. (연극을 그저 한토막 美談 정도로 생각하는 관념). 특히 요즘처럼 거의 광신적인 국수주의 또는 애국주의 내지는 「우리 것」 떠받들기의 풍조 속에서 《달아 달아……》의 거의 자학적이라 할 만한 Sarcasm은 곱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회포 안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보이는 반복에 의한 강조법이 무대 위에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문행극회」가 유독 이 작품을 선택한 뜻은 사주고 싶으며, 대학생들의 얼핏 무모한 듯한 패기가 뜻밖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소지가 이 작품에 들어있다고 믿어진다.

수고한 스태프·캐스트에게 보람있는 공연이 되기를 빈다.

기대되는 연극

정진수 지도교수



초대의 글

우리의 작은 외침!

회장: 조규엽(신방2)

지난 여름,

우리는 솟아오르는 욕망에 못 이겨 또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참으로 고달픈 자신과의 투쟁의 연속이었다.

이제 서서히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100일간의 고행의 여로가 끝나간다.

허공에 사라지는 연기처럼 허무하게 꺼져가는 배역의 순수한 인간성을 못내 아쉬워 하며 또 한 번 허공에 외쳐본다.

막은 내리겠지만 그 외침은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깊이깊이 자리잡고 끝없는 메아리 되리라.

오늘, 우리 스스로 만족해 버린 연극이 아니기 위해 부끄럽게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 막을 올린다.



■ 심 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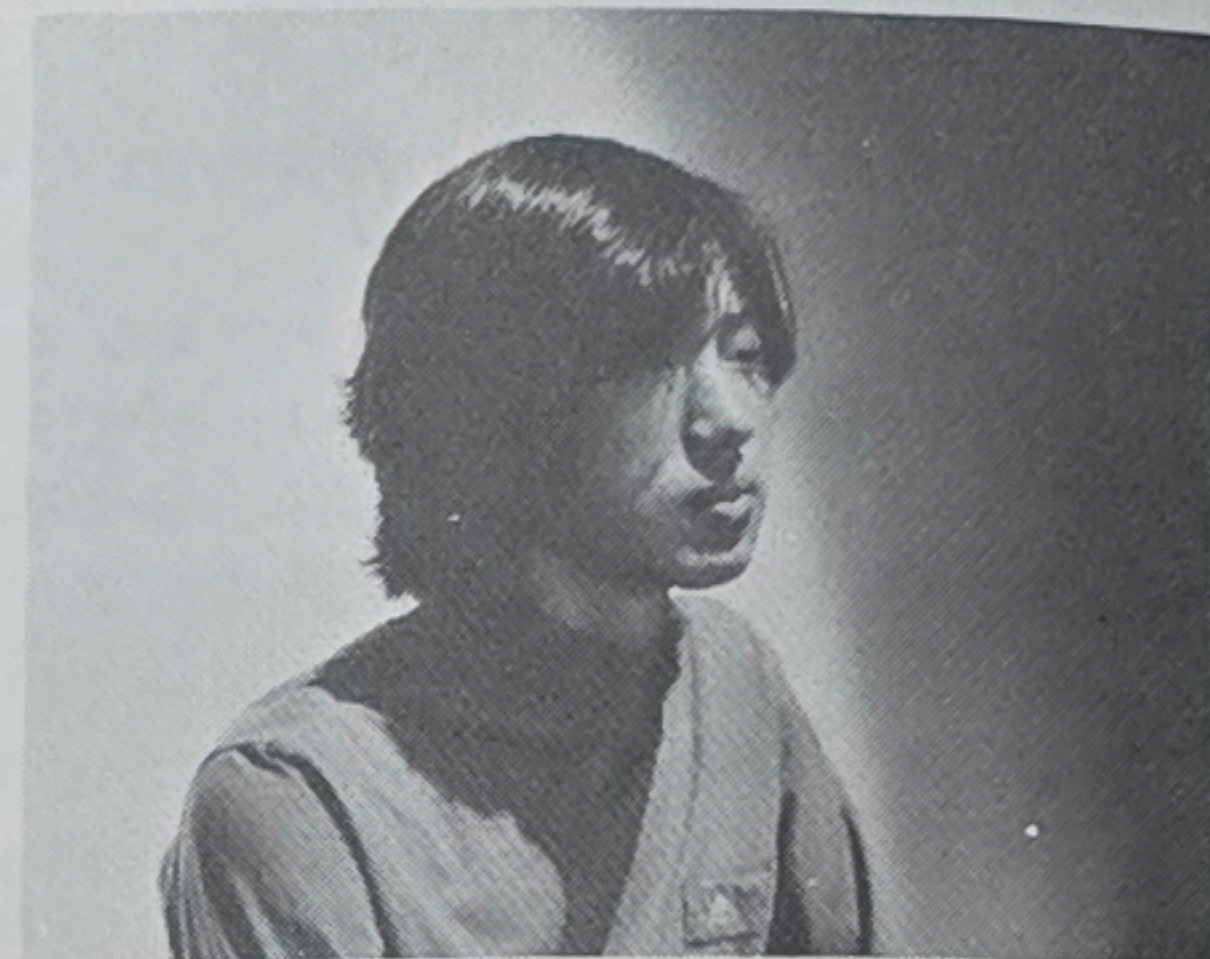
서리은 (유학 2)

■ 심봉사 ■



조규엽 (신방 2)

■ 김서방 ■



하헌전 (어문 1)

■ 뽕덕어미 ■



신향순 (약학 3)

■ 매 파 ■



유홍선 (역철 1)

■ 손 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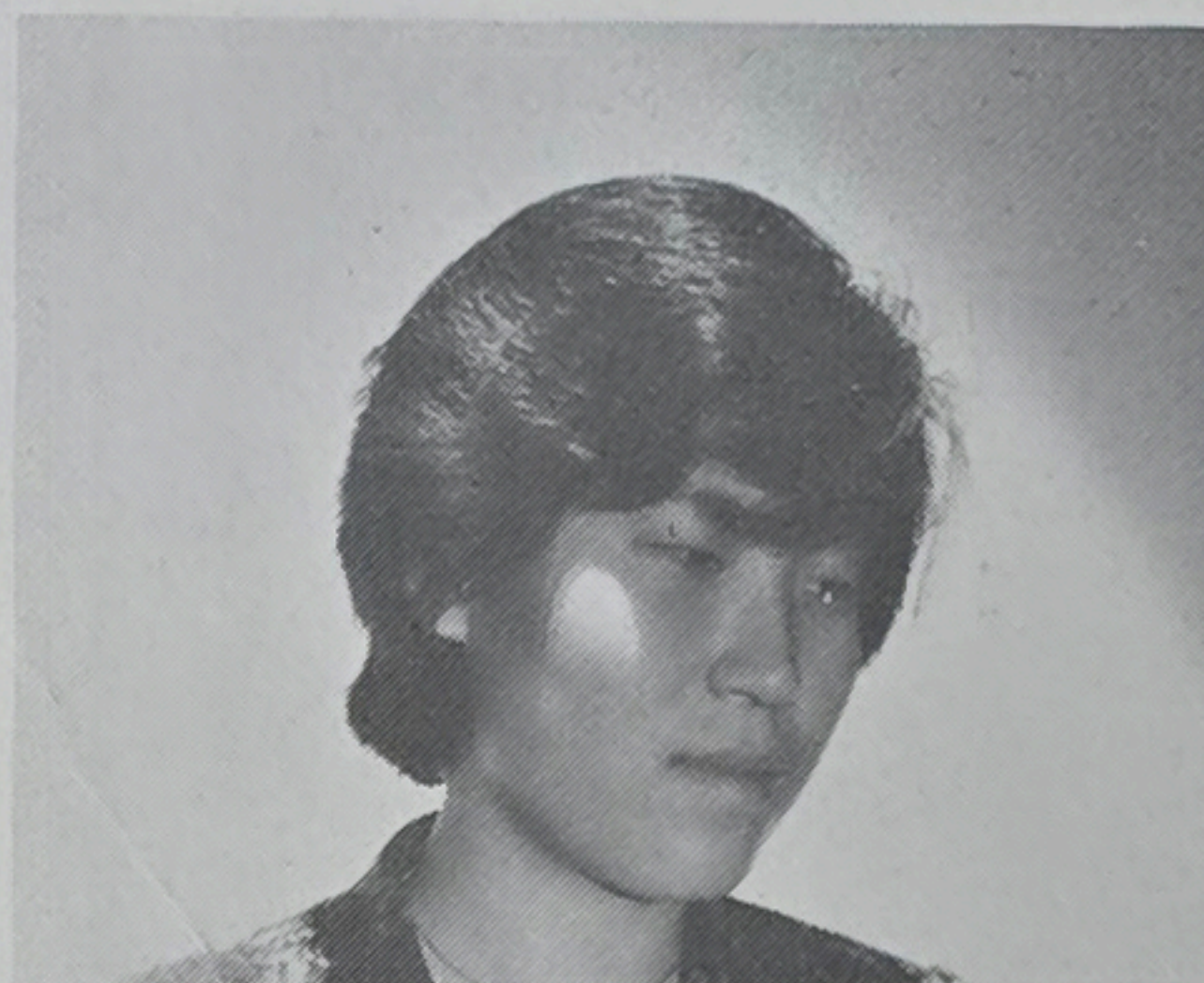
박상준 (이학 1)

■ 사 자 ■



김 상 일 (공학 1)

■ 아 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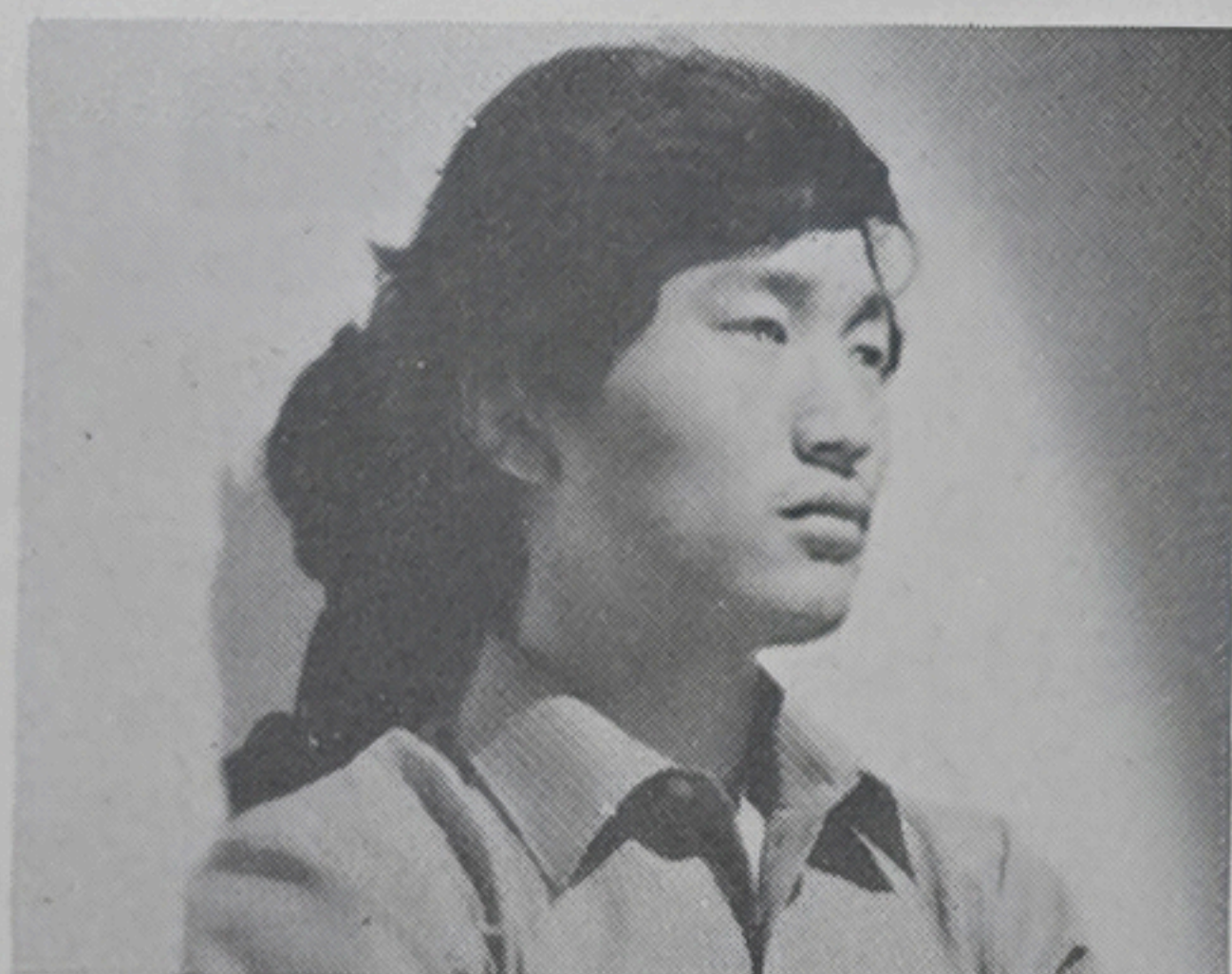
배 인 숙 (수교 1)

■ 해적 1 ■



한 수 환 (섬유 2)

■ 해적 2 ■



유 재 오 (공학 1)

■ 해적 3 ■



남 구 회 (공학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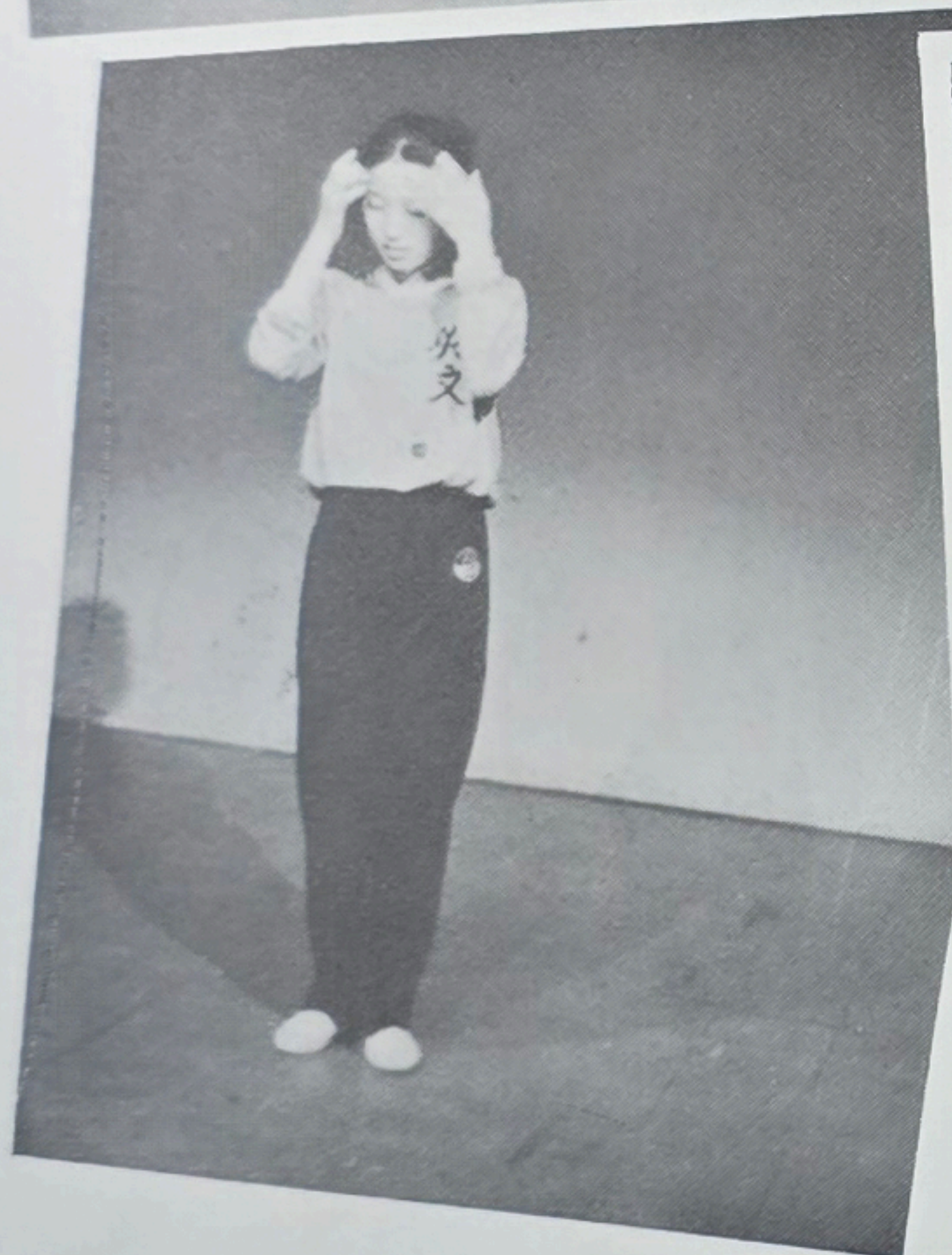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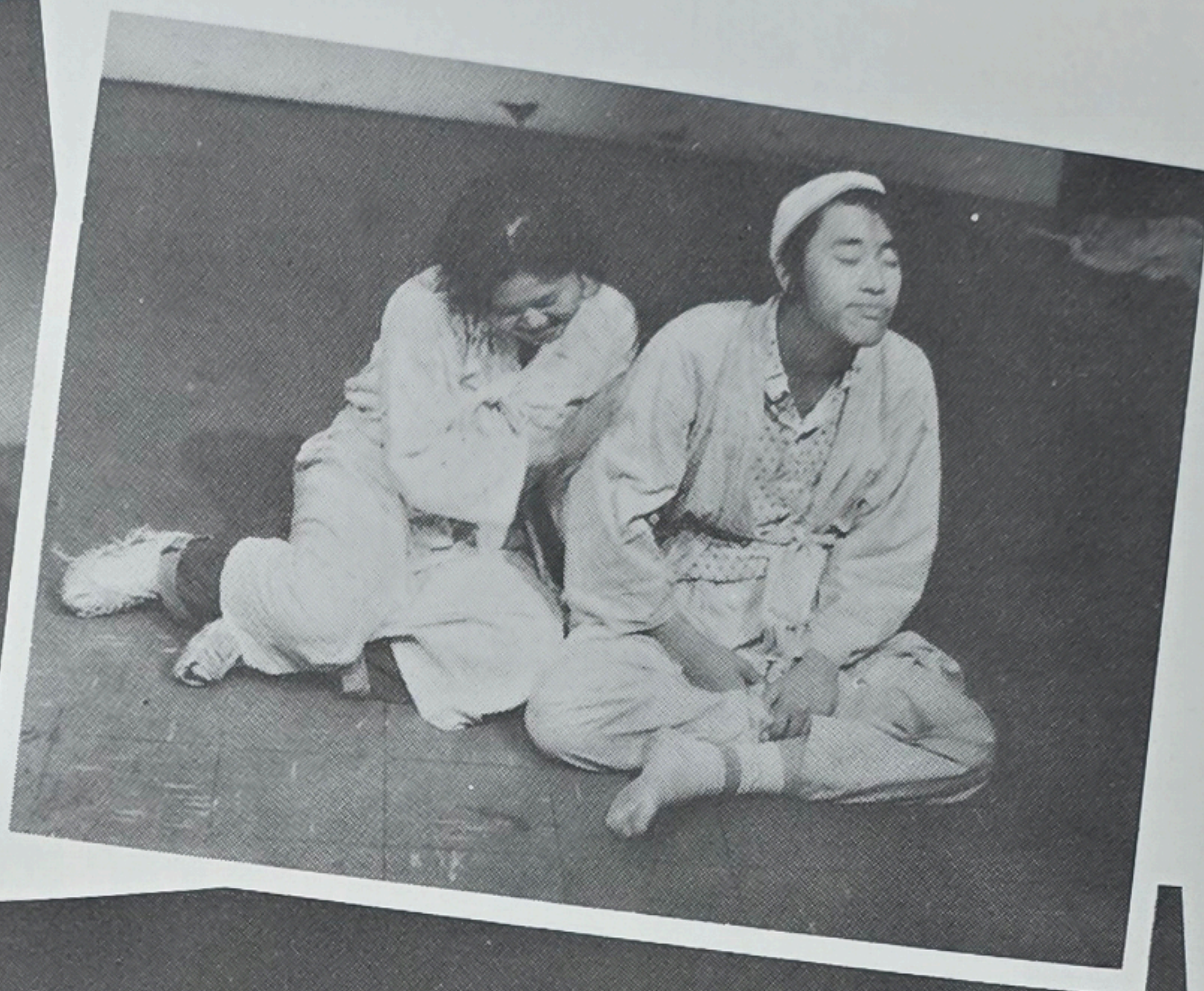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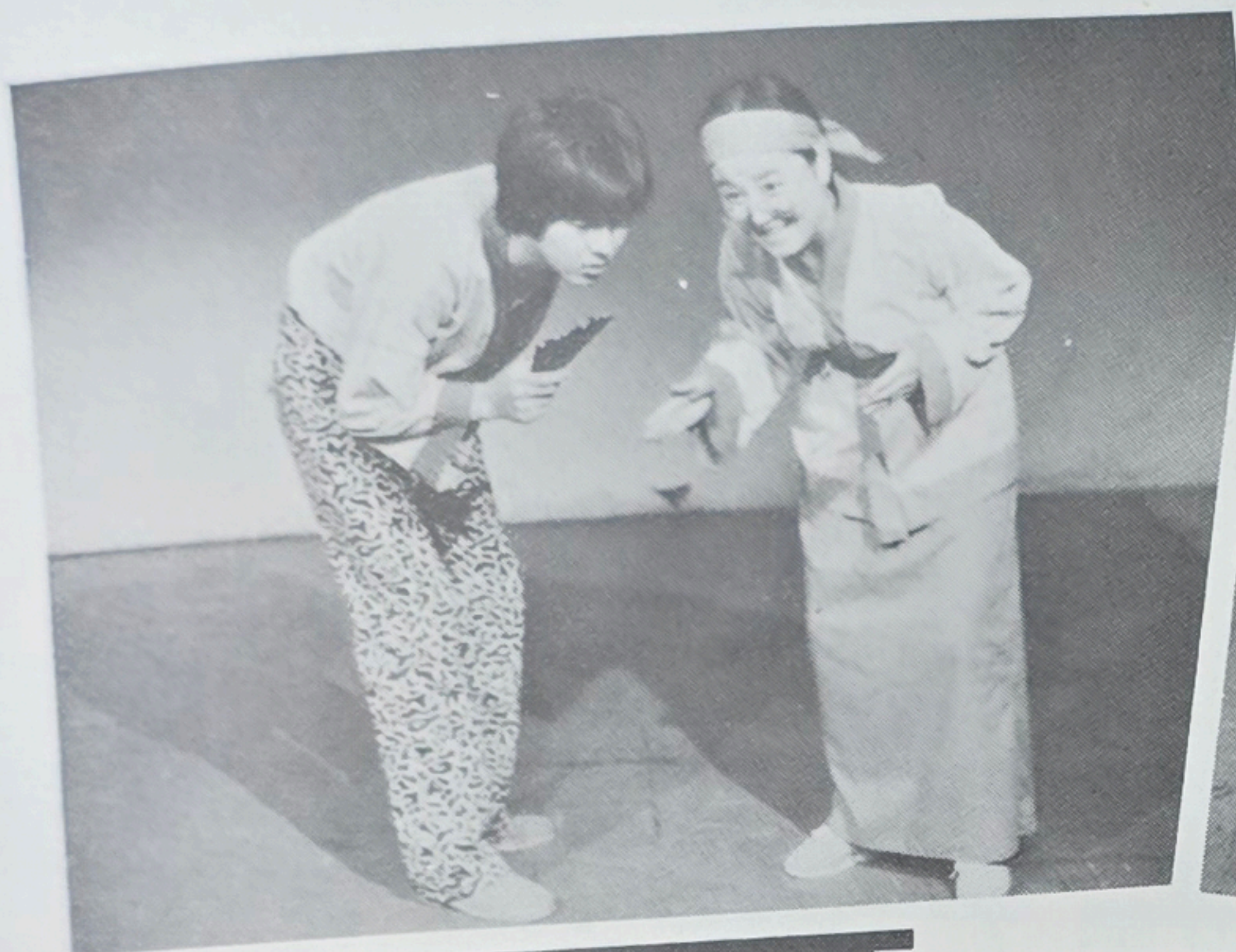
■ 해적 4 ■



김 현 진 (공학 1)

살아 살아 살아

연 습 장 면



기획COLUM

노력한 모든 시간과 뜨거운 포옹을 ...!

—— 찻잔산중 ——

미약한 우리의 힘으로 이런 큰 公演을 준비한다는게 한편으론 무척이나 무모한 듯 싶었지만, 어차피 人生이 모험이라면 감히 도전해보고 싶었던 慾望이 컸기 때문이리라.

구배여 大學文化 창달이라는 현학적 文句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社會의 大學에 對한, 절실하게는 大學演劇에 對한 무관심과 그들 나름의 편견은 우리를 하다 못해 우습게 만든다.

學校측의 배려(?) 또한 한껏 우리를 허탈의 웃음에 젖게 만든다.

「한송이의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

말장난에 익숙해 있는 어느 詩人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3개월간 피땀을 흘려왔다.

한가닥 빛 속에 사라져 버릴 우리의 노력이지만 자아성숙을 爲한 우리의 창조작업은 그 과정에서 意味를 찾아야 될 것이다.

이제 막은 오른다.

변변하지 못한 活動, 임기응변의 연속이었음을 시인한다.

결코 만족 못하고 결론지워질 生이라면 노력만으로 우리의 아쉬움을 달래 보련다.

수고한 캐스트들, 스태프진들, 그외 外部에서 도와주신 여러분들, 발에 불이 나도록 우리의 이 작은 空間을 메꾸기에 노력했던 모든 이들,

또한 잊을 수 없는 노력을 同伴했던 모든 時間들과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싶다.

—— For Tomorrow's Memorie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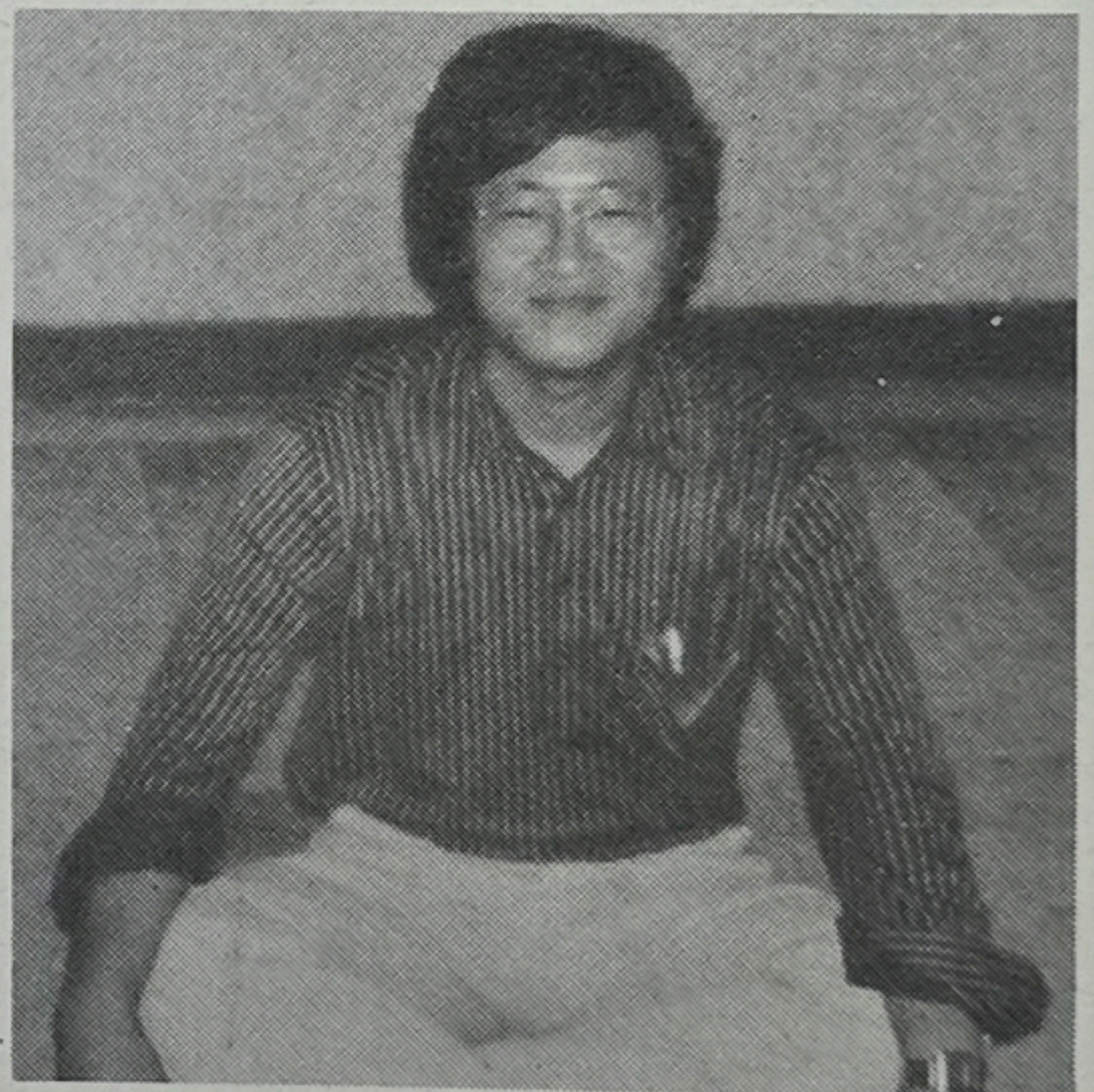
이명은
(생물 3)



장은주
(역철 1)



송성훈
(도서관 1)



문화회 정기대공연 연표

횟 수	년 도	작	품	작	가	연	출
1	'48	아름다운 청춘		김 모 시		현	민
2	'49	깨어진 항아리		H.V. 크레이스트		노	화
3	'59	흑벽은 무너지다		심 영 식		심	영
4	'60	성자의 샘		J. M. 싱 크		이	기
5	'62	장님의 권리		T.C. 머 레 이		정	해
6	'63	삼중 인격		이 용 찬		강	영
7	'63	불 모 지		차 범 석		정	해
8	'64	모자에 가득찬 빗물		까 소			"
9	'65	목 격 자		M. 앤 더 슨			"
10	'66	무덤없는 주검		J.P. 싸 르 트 르		한	국
11	'67	마리우스		M. 빠 올		나	영
12	'67	어느날의 환상		하 유 상		조	경
13	'67	썩 실		앙 누 이 유			"
14	'68	크 노 크		줄 로 맹 유		정	해
15	'68	고 래		유 진 · 오 닐		조	경
16	'69	인간 증오자		몰 리 에 르		표	재
17	'69	병어리부인을 가진 남편의 희극		A. 프 랑 스		김	현
18	'69	죽 흥 극		T. 모 젤		박	진
19	'70	메씨나의 신부		F. 쉴 러		신	공
20	'70	Hellow! out there		W. 새 로 얀		박	순
21	'70	점을 칩니다		오 재 호		김	세
22	'71	노부인의 방문		뒤 렌 마 르		윤	"
23	'71	병어리부인을 가진 남편의 희극		A. 프 랑 스			"
24	'72	양주 별산대		민 속 극		김	세
25	'73	아버지 연설		기 프 와 시		김	상
26	'73	안나 · 막달레나		쿠 르 트 뢰 츠			"
27	'73	양주 별산대놀이		민 속 극			"
28	'73	석회무덤		성 균 극 회		정	동
29	'74	장 님 들		젤 드 로 드		최	홍
30	'74	성균산대놀이		민 속 극		김	상
31	'74	갈 증		김 상 득			"
32	'75	청 혼		체 흡			"
33	'75	뜨거운양철지붕밑의 고양이		T. 윌 리 엄 즈		이	윤
34	'76	곰		체 흡		이	영
35	'76	잠 적		하 인 리 히 빌		박	종
36	'76	포기와 베스		헤이워드 부처		김	효
37	'77	불어를 하세요		머레이 시스칼		최	윤
38	'77	죽 흥 극		T. 모 젤		이	정
39	'77	초 분		오 태 석		이	영
40	'78	아르쉬트룩 대왕		로 베 르 뺑 쥐		최	영
41	'78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최 인 훈		이	영
42	'79	태양이 닿지 않는 벽		김 청 원		배	인
43	'79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최 인 훈		이	정
44	'80	어느 극작가의 하루		장 · 아 누 이		이	희
45	'81	서울 · 1981년 겨울		김 승 욱		이	홍
46	'81	환 절 기		오 태 석		구	재

※ 단, 교양학부 연극과
Work Shop 공연 연보
는 제외되었음)

文脈의 책들

저자 소개

진 스트래튼 포터는 금세기 초의 미국의 저명한 여류작가로서 거의 모든 작품을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여 쓰고 있다.

이 소설은 미국의 근대 고전으로 꼽히고 있으며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애독되고 있다.



진 스트래튼 포터 지음
김 정숙 / 문 숙영 옮김

린바로우스트의 처녀

린바로우스트의 숲 속에 피어난 값지고 청순한 사랑!

이름없는 한낱 시골처녀 엘리노라는 어떻게 귀공자 필립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필립은 왜 부자이며 미모의 약혼녀를 뿌리치고 그녀를 택했을까.

그녀가 실천한 사랑과 행복의 조건은?

제3地帶의 証言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강원용 박사의 신적. 새로운 삶의 지대 제3지대를 거점으로 오늘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姜 元 龍 著

現代物理學의 最尖端

— 佛敎思想과의 만남 —

게리온카브 著

宋東健 監修
崔俊植 譯

(이 책은)……現代物理學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과 인간의식의 가능한 변형에 現代物理學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전적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 1980년 2월 15일 (런던) 타임즈 서평에서 —

여자가 바다를 느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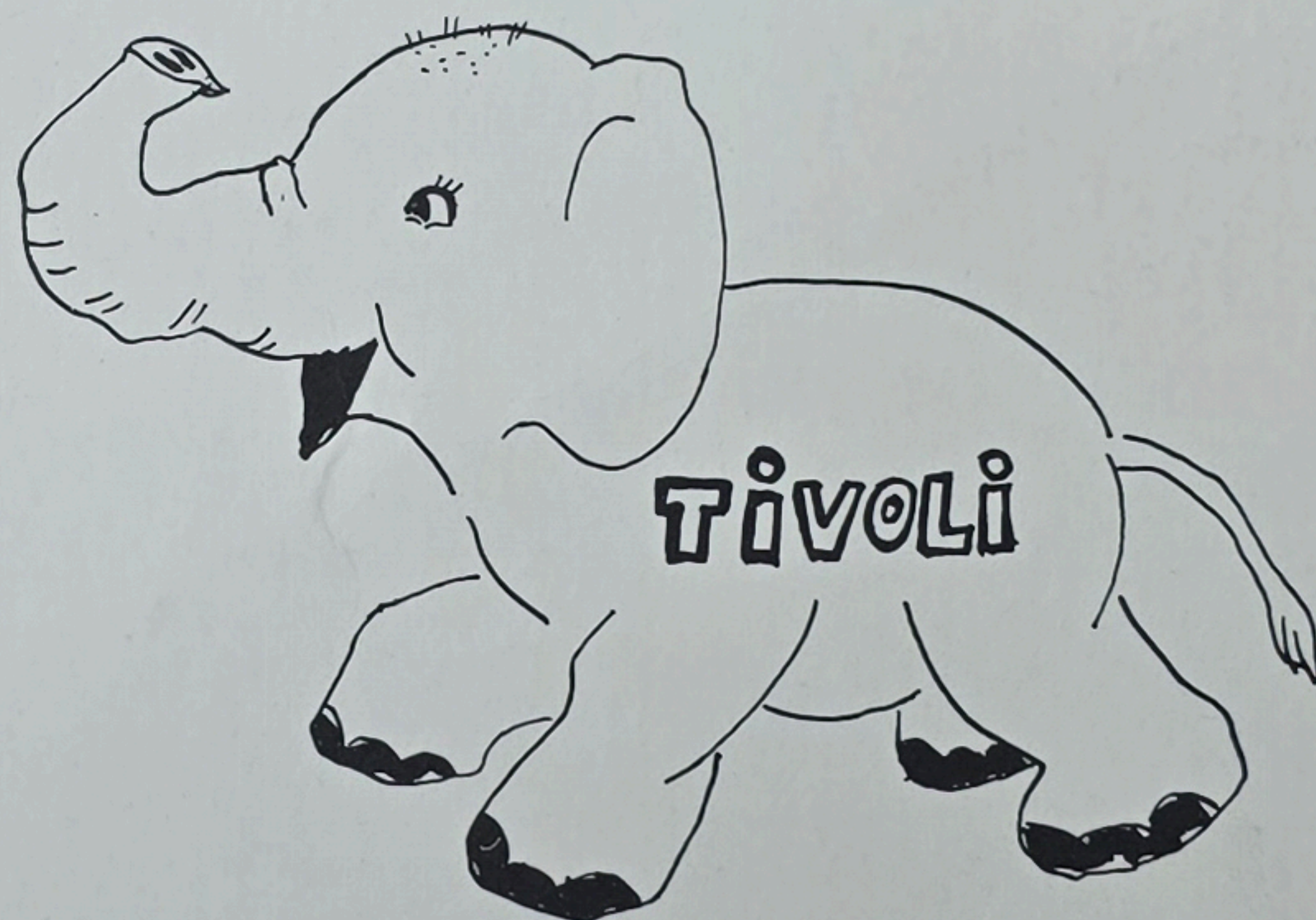
나카자와 게이 지음
최 미 나 옮김

일본의 신인상 수상작. 작가는 18세 여학생으로, 16세 때부터 2년간 사랑과 성을 체험하면서 여자인 자신을 자각하기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서울·종로구명륜동 4가188-7 동화빌딩325호 ☎ 762-1317

♡ 맛의 전당 ♡

티볼리



친절로써 봉사하겠습니다

《성대정문앞》

SNACK TOWN



저 있잖아요.
비원앞에 조그맣게 불꽃이 피었습니다.
멋진 음악과 한잔의 차와 술……
한번씩 들러 보세요.

MAROON
COFFEE · SNACK · BEER
불꽃

※ 개업실비봉사

대표: 윤 동 호

☎ 765-2155 · 종로구 와룡동143

